

# 主要國 電子製品에 円貨와 油價가 미치는 影響 및 対策

## - 主要國家別 影響分析과 輸出 增大 方案 -

KOTRA 海外調査部

### □ 序言

본고는 KOTRA 海外調査部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 상품별 국가별 日本 円貨 강세 및 石油價格 하락이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전자공업 부분만 발췌 정리한 것으로서, 기민한 해외조직망을 확보하고 있는 KOTRA의 각국 현지 무역관에서 직접 수집 분석한 자료인 만큼 우리 업체에 실감있는 전달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고에는 금년도의 수출입 현황과 전망, 円貨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수출 증대 방안 등이 국별로 한국 혹은 일본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1. 일본 엔화 환율 변동 및 국제 석유 가격 하락 추이  
가. 일본 엔화 환율 변동 추이(對美 환율)

일시 통화종류	'80년말	'84년말	'85			'86	
			2월 평균	9월 평균	12월 평균	1월 평균	2월
일본(¥)	203.00	251.85	254.18	236.95	293.72	200.07	180

- 나. 국제 유가 변동 추이

(단위: 弗/ BBL)

연도별	60년대말	76~78년	'85		'86	
			1월	12월말	1월말	2월말
가 격	2	12	28.10	26.50	18.55	15.5

### 2. 원인별 분석

단위: 백만弗

'85실적	'86 전망치	증감률 (%)	엔고에 따른 영향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	수출 증대 방안
4,352	5,330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경부터 일본업체 수출가격 인상 전망</li> <li>국내업체 TV, VTR, 전자렌지 등 가격 경쟁력 제고</li> <li>주요부품의 대일수입편중(80%)에 따른 원가 10% 상승요인</li> <li>외환비용증대</li> <li>15%이상 외형증대 불가 시 수익성 확보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산업은 탈에너지 산업으로 원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li> <li>국내유가 11.2%, 전기료 2.8% 인하시 전기전자산업 전기료는 0.1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부문은 0.08%, 원가절감효과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일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li> <li>수입선 대일의존탈피, 구미로 전환</li> <li>수입규제 유발효과가 적은 전자부품 위주 수출증대</li> <li>초소형 VTR, CD 플레이어 등 첨단제품 수출주력</li> <li>해외홍보·관측 활동 강화</li> </ul>

### 3. 전자제품에 대한 영향 분석

#### 가.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천弗

품 목	1984		1985		1986	
	실적	증감 (%)	실적	증감 (%)	전망	증감 (%)
전자제품총계	4,203,926	39.2	4,352,140	3.5	5,330,000	22.5

자료: 전자공업진흥회

#### 나. 엔고에 따른 영향

1) 일본 전자업체들은 엔고로 발생한 환차손에 대처키 위해 오는 4월경부터 수출가격을 전격 인상할 계획에 있음.

2) 따라서 국내 전자업체는 TV, VTR, 전자렌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완제품 부문의 경우 가격경쟁이 제고, 동남아·미국 등 시장에서 일산에 비해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3) 그러나 주요 부품의 대일 수입편중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총매출고의 10%정도를 잠식할 것으로 보여 외환비용 증대의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현저한 외형증대(15%이상)가 없으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우리나라는 총 외산부품 수입규모 30억弗의 80%에 해당하는 24억弗 상당을 일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 품목별 국산화율 및 국산 불가 부품의 대일 수입 의존도

구분	품 목	국산화율 (%)	국산불가 부품대일 의존도%	비 고
가정용	VTR	65	100	헤드드럼, 모터
	컬러 TV	90	95	IC 류
	전자렌지	75	100	도파관, 스위치
산업용	팩시밀리	60	100	서머헤드
	퍼스컴 본체	40	80	IC
	프린터	35	90	메커니즘
	CRT 터미널	50	90	IC
	전화기	90	95	IC, 키보드스위치
부품	컬러브라운관	80	95	화공약품
	스피커	70	95	콘지
	스위치(볼륨)	50	80	
	콘덴서(전해)	60	95	절연지

#### 다.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

1) 전자산업은 장치 산업으로서 탈에너지 및

자원절약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임.

2) 따라서 전력요금인하 요인으로 생산원가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기타 에너지 다소비 업종(합성수지제품, 석유화학제품 등)과 비교할 때 원가에 미치는 폭은 극히 미미할 것임.

3) 생산원가 중 유류비 및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

○전기·전자산업 전체

- 생산원가 구성비 (%)

• 전력비: 1:80%

• 유류비: 0.62%

○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 생산원가 구성비 (%)

• 전력비: 1.18%

• 유류비: 0.4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 생산원가 구성비 (%)

• 전력비: 2.58%

• 유류비: 0.59%

자료) EPB 산업 센서스 보고서(1985.9 발행)

4) 상기 제통계를 종합할 때 국내 유가가 11.2%(소비자 가격), 전기료가 2.8% 인하되면 전기·전자산업 전체로는 0.1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부문은 0.08%,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부문은 0.14%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됨.

#### 라. 수출 증대 방안

1)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IC를 비롯 VTR 용 모터, 전자렌지의 도파관, 팩시밀리의 서머헤드, 컬러브라운관용 화공약품 등 주요 핵심 부품에 관한 국산화 추진

2) 대일 수입편중에서 탈피, 유럽, 미국 등 지로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 시현

3) 중소기업의 경쟁적인 생산체제 및 소량 다품종 수출체제 확립

4) 수입규제 유발효과가 비교적 작은 전자 부품 위주 수출증대 및 완제품의 현지생산 방안 모색

5) 초소형 VTR,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CD 플레이어 등 첨단제품의 개발 및 해외홍보 판촉활동 강화

# □ 国別 電子産業動向 및 方案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수출 증대 방안—

## 1. 美 国

단위: 백만弗, ( )내는 部品 실적임

구 별	수 출 실 적		증감률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 9 8 4	1 9 8 5 (1 - 10)			
한 국	2,366.9 (1,073.8)	1,861.9 (733.5)	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가전제품 특히 컬러TV, VTR 음향기기 부문에서 한국의 대미시 장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반적 으로 10%상당의 가격인하공세를취 함으로써 한국 전자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li> <li>• 85년말을 즈음하여 엔화가치 급상 승은 가격인하공세의 중단은 물론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급전환되고 있어 한국제품 의 경쟁력이 크게 호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li> <li>• 따라서 VTR의 경우 미시장 쉐어가 85년의 3.5%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약 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컬러TV를 비롯한 기타의 가전제품도 일본시장 쉐어를 다소 큰 폭으로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li> <li>• 부품의 경우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규제움직임과 가격의 급상승으로 한 국산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어 수 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일본산부품을 사용 하던 미 주요 전자업체에 대한 수 입선 전환 등으로 전체적인 전자부 품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li>• 전자제품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여 엔고의 영향력을 단순하게 분석하 기는 어려우나 가전부문에 한하여 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호전 되어 VTR, 컬러TV 등 주요 가전 제품은 1/4분기중 공급능력 부족으 로 주문을 수주하지 못하는 현상마 저 나타내고 있는 실정므로 금년도 전반적으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현지업체에서는 전망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히다찌, 마쓰시다 등 주요 가전제조업체들이 금년도부터 미 국내에서 VTR의 현지 조립판매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들 업체와 현지 생산업체들을 중심 으로 한국산에 대한 덤핑규제 제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현지생 산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사전대비 강구가 요망됨.</li> <li>• 이미 일부업체에서 시행되고 있 으 나 Buyer Brand로는 수출증대에 한계가 있는바, 시장정착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각종 광고매체와 활 동강화를 통한 고유 브랜드 이미지 부각 확대가 시급히 요망됨.</li> </ul>
일 본	19,657.6 (5,079.0)	18,550.5 (4,106.6)	20,000.0		

〈미국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경제전망

- 미경제자문심의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인 Mr. B. Sprinkel에 의하면 86년 미국의 경제는 85년의 2.8%보다 높은 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동 심의회가 금년 1월중 발표한 부문별 중기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실질 GNP 성장률 (1982년가격)	4.7	2.8	4.0	4.0	4.0	3.7	3.6	3.5
GNP Deflator	4.1	2.9	3.8	4.1	3.5	3.2	2.5	2.0
실업률	7.4	7.1	6.7	6.5	6.3	6.1	5.8	5.6
단기금리 (91일어음기준)	9.6	7.5	7.3	6.5	5.6	4.8	4.3	4.0
장기금리 (10년만기공채기준)	12.4	10.6	8.9	8.5	7.3	5.5	4.8	4.5

- 와튼경제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86년에 미국

경제는 2.5~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86년도 미국의 경제는 당초 정부가 예측한 4%보다는 낮지만 85년의 2.8%보다는 높은 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미국내 25개 유명 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였음.

나. 수출입현황

- 85. 1~11월까지 미국의 수출입총계는 각각 1,962억弗 및 3,280억弗로 적자누계는 1,318억弗에 달해 85년 전체로는 1,450억弗 정도의 무역적자 기록예상.
- 85년 11월까지 달러화가 약 20%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난망.
- 경제전문가들은 달러가치 하락이 무역역조 개선효과에 이어지기까지는 86년 하반기에 거시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 '86년 수출입전망

- 수출 : 2,282억弗
- 수입 : 3,707억弗
- 무역적자 : 1,425억弗

2. 캐나다

단위: 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출 경쟁력 분석	수출 증대 방안
	1984	1985 (1-11)	86(전망)	증감률		
(가정용기기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현지수입은 현지자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엔화 상승분만큼을 현지자회사에 흡수하므로 현재 소비자가격 인상없음.</li> <li>• 3월말 결산이후 가격인상 예상되며, 이것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6월이후.</li> <li>• 그러나 현지자회사 없는 전자제품은 20% 정도 가격인상 (예: Nakamichi BX300 Tape Dec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제품 가격인상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 수출주력, 품목 다양화 및 품질제고(그러나 현재 한국생산 Capacity 풀 가동중이라고 하며, 6월이전 주문은 받을 수 없는 상태)</li> </ul>
한 국	117,356	82,489	130,000			
일 본	770,168	653,998	700,000			
(전자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 전자부품 수출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기 피하는 현상보임.</li> <li>• 3월말까지는 '85년 가격유지, 4월 이후 약 20%정도 가격인상 예상 (수차에 나누어 인상)</li> </ul>	
한 국	18,509	11,267	20,000			
일 본	39,110	33,867	35,000			

〈캐나다의 '86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변동에 따른 전망

- 엔화 상승세에 따라 대일 수입감소 전망 : 약 10%
  - 캐나다의 대일수출은 원자재 수출비중(83.3%)이 크므로 큰 변동 기대난망.
  - 캐나다달러화의 대미화 약세현상에 따라 대미수출호조 및 대미수입감소 예상
  -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대미무역 비중이 70~80%인 반면 대일무역 비중은 5~6%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엔화 강세현상보다는 캐나다 달러화의 대미화 약세현상에 따라 캐나다 수출신장,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 나. 유가 하락에 따른 전망
- 캐나다 유가는 정부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최근 국제원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내유가는 변동없고, 또 당분간 이의 반영 기미없음.
  - 또한 캐나다는 원유수입보다는 원유수출(99.9

%를 미국에 수출)이 많기 때문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득없음.

- '85. 1~11 캐나다의 원유수출 : C\$ 54억6,900만
- '85. 1~11 캐나다의 원유수입 : C\$ 32억9,700만
- 결론적으로 국제원유가 하락세에 따른 캐나다 수출입에의 영향은 1986년도에는 큰 변동 없을 것임. 단 동저유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수출단가 인하, 물가하락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 등으로 수출입이 공히 증대될 전망이다.
- 다. 결론
- 상기요인들을 고려할 때, 1986년 캐나다 수출은 '85년 대비 10% 상승한 C\$1,310억, 수입은 '85년 대비 5% 상승한 C\$1,050억에 이를 전망이다.
- 무역흑자폭은 '85년 C\$ 190억에서 '86년 C\$ 260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 日 本

단위 : 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11)	'86(전망)	증감률		
한 국 (전자제품)	439,205	399,341	499,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전자제품류는 전반적으로 부품류를 중심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해 오고 있는바, 엔화강세로 인해 한국산 부품류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일본측 부품구매업체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ul>	
한 국 (가정용)	38,745	24,986	37,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가정용 전자기기의 대중공 수출급감으로 인해 내수시장에서의 수입품과의 경쟁격화예상, 한국산 가격, 품질경쟁력 열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가정용 전자제품 수출이 감소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본 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저가품 시장진출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li> </ul>
한 국 (부 품)	384,042	361,763	443,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경쟁력 대폭 강화로 일제 합작 기업내지 한국내 100%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수출증대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설립된 일본계 합작기업, 또는 100%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일 수출증대유도 및 일본내 세트메이커에 대한 부품류 조달강화.</li> </ul>

〈일본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개황

- '86년도('86. 4 - '87. 3월)에는 미국경제가 달러

강세의 시정으로 인해 실체경제의 변화가 예상되나 경제성장률은 2~3% 성장에 불과하는데 그치고, EC는 내수 확대로 성장률이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개도국경제는 원유 및 일차상품 시황의 저미가 계속되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 확실시됨.

- 세계무역 신장률이 이러한 정세를 반영 '85년도에 3.3%, '86년도에는 2% 정도의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다.
- 따라서 '86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감소가 예상되며, 수입도 미증에 그칠 전망이다.

나. 수출

- 일본의 수출은 1985년도 상반기에는 대중공 무역의 현저한 증가와 대개도국 수출부진, 대미수출 대폭 둔화 등으로 신장률은 1.7%로 저하되었음.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되어 '85년도 전체로는 2.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86년도는 세계경제성장 둔화, 엔화 강세의 영향이 예상되어 일본수출은 수량감소로 한층 증가율 둔화가 예상된다. 이를 배경으로 '86년도는 1,760억弗(전년도대비 1.1% 증가) 정도

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다. 수입

- '86년도 일본수입은 내수확대, 제품 수입확대 노력과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85년도 수입을 약간 상회하여 1,305억弗(전년도 대비 1.2% 증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제품류 수입이 전체수입에 점하는 비율은 '84년도 30.3%, '85년도 32%, '86년도에는 33%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무역수지

- IMF 베이스의 무역수지 흑자는 '85년도 545억弗, '86년도 550억弗.
-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억弗, %)

품 목	1985(추정치)			1986년 전망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액	1,740	100.0	2.6	1,760	100.0	1.1
기계	1,259	72.4	5.1	1,282	72.8	1.8
사무용기계	79	4.5	1.7	82	4.7	3.8
테이프레코더	85	4.9	0.4	87	4.9	2.2
기타기계	617	35.5	1.8	621	35.3	0.6

4. 英 国

단위: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출 경쟁력 분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한 국	94,258	114,404	172,440	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웨이브오븐, VCR, 홈컴퓨터의 경우 대일부품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다 영국내시장 경쟁격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로 엔화 강세 효과잠식 현상.</li> <li>• Sanyo, Philips 등 VHS VCR 후발 메이커, 시장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nyo 'Infra Red Remote Control' VCR 소매가격 £349로 한국산 유사기종보다 £50 저렴</li> </ul> </li> <li>• 일본, '85하반기부터 CD Player 를 중심으로 기존 오디오시장 구조재편성 움직임.</li> <li>• 엔화강세현상과 관련, 중소형카세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컬러TV 등 가격경쟁제품의 대일 경쟁력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85년도 대영수출을 주도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경우, '86년부터 Datung, Sampo 등 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홈컴퓨터, VCR 등 가격경쟁력 확보 품목의 영국내브랜드 마케팅 활동강화</li> <li>• 엔화 강세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 카세트 라디오부문의 현지 유통 채널 개척활동 강화</li> <li>• 가격인하, 연관 소프트웨어의 다양화로 수요증대 추세에 있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조기개발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용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등 '80년대 후반의 오디오 시장관도를 변화시킬 신기종으로 부각.</li> </ul> </li> <li>• 뮤직센터, 흑백TV, 컬러TV 등 기존 수입규제품목 이외에 VCR,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 신규 수출 품목 또한 수입규제 우려가 큰점을 감안,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본의 예와 같은 현지 생산 조립라인 투자진출을 통한 수입규제 회피 및 안정적 부품 공급선 확보전략 채택</li> </ul>
일 본	1,427,724	1,623,593	1,868,100	3.9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만산제품 신규 진출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감소 우려	필요

〈영국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전망
- 영국정부는 석유통화인 파운드화 약세에 따라 고금리를 통한 파운드화 가치 유지추구.
    - 인플레이 억제를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
  - 이에 따라 제조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수출증가율 둔화 우려 (CBI)
    - 고금리(현행 13.5%수준) 지속에 따른 업계 금융비용 부담 가중
    - 달러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 영국의 대일 수입비중은 5% 내외로 엔화 강세에 따른 실익은 일부 가격 경합품목을 제외하고는 미미.
    - 나. 석유 가격하락에 따른 전망
  - 영국 정부는 당초 원유가가 배럴당 US 26弗

- 선 유지 전제하에 수출증가율 2%, 수입증가율 4%전망(물량 기준)
- London Business School 분석에 따르면, 원유가가 US16弗까지 하락시 실 수출 증가율은 재조정 전망.
  - 원유수출은 영국전체 수출(서비스포함)의 7~3%로서, 10%의 원유 하락시 전체수출액에 1% 감소효과
  - 원유수출부문: 20억 파운드 수입감소 및 전체 수출에 영향
- 민간소비자 지출증가율 위축으로 수입증가율 2%까지 둔화 전망.
  -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수입 감소로 감세정책에 차질(당초 약40억 파운드 감세계획-10억 파운드 이내로 축소확실)

5. 西 独

단위: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1~6)	'86(전망)	증감률		
한 국	113,842	62,471	1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소비 전자제품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저가정책을 취해 왔으나,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로 한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포기하거나, 환차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품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1~2년전부터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품목의 대독진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급 하이파이기, 라디오(카세트 겸용), 퍼스널 오디오제품, C/TV, VTR, 비디오테이프, 카스캐레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시계류 등.</li> </ul> </li> <li>• 소비자용 가전제품중 고급제품이나 고성능제품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마르크화 강세 및 엔화 강세를 이용, 최근의 대서독 진출개시품목 및 진출 호조품목인 C/TV, VTR, 고급 카스캐레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시계, 비디오테이프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본의 독무대나 다름없는 소비자전제품 시장의 교두보 확보 및 일본의 기존시장 잠식.</li> <li>• 한국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li> <li>• 최근의 엔화 강세를 이용, 반도체의 경우 OEM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침투 및 이를 통한 인정적 구매선 확보.</li> <li>• CRT의 경우 올해부터 GSP한도액이 설정되어 대유럽 물량확대의 경우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했으나,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li> </ul>
일 본	2,137,948	1,015,094	2,150,000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6)	'86(전망)	증감률		
					<p>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중급품 분야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수준급에 있기 때문에 한국산은 가격경쟁면에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스널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 분야에서 일본산에 대한 한국산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대독 수출확대의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li> <li>• 전자부품중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한 Diode, Transistor, IC 회로 등과 PCB, 저항기, 축전기(Capacitor) 등의 진출이 유망함.</li> <li>• 컬러TV용 CRT도 GSP·쿼타품목(Individual Quota)로 지정되어 있어서 엔화 강세가 경쟁력 향상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li> <li>• 반도체의 경우 64KD RAM IC 분야에서 치열한 경합을 보여왔고 올해에는 256K DRAM에서도 경합이 예상되는데 동품의 수급 특성상 「엔화의 강세—일본산의 가격상승—시장점유율 축소」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함. 단지 한국업체는 엔화환율 변동폭만큼의 채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이용, OEM방식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p>제품과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서독 TV메이커에의 공급을 적극화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대독 진출이 유망시되고 있는 PCB, 저항기, 축전기 등 가전제품용 부품의 적극적인 대독진출 모색.</li> </ul>

〈서독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 83년 이래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독의 경제는 올해 역시도 평균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어짐. 86년도 경기상승 요인은 무엇보다도 중산층 이하에 대한 조세감면과 유가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구매력 향상으로 풀이하고 있음.
- 서독 Westland Bank의 86년도 경기전망에 의하면 GNP의 증가율은 3%로써 83년 이래 최대의 기록적인 증가율이 기대되어짐.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5.2%정도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

음. 반면 수입은 세계 개혁과 석유가 하락으로 유발되는 가치분 소득증가와 이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6.2%의 증가가 예상되어 서독으로서는 83년 이래 최대의 수입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됨.

- VWD(Vereinigte Wirtschaftsdienste GmbH)의 분석에 의하면 석유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86년도 구매력 증가는 150~260억 마르크로 추산하고 있음.

현재 서독의 유명백화점 체인들은 유가인하에 의한 소비자의 가치분 소득 증가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



상하고 있음. 예로써 Karstadt 및 Kaufhof 에서는 일반대중용 제품판매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Hüssel 및 Rosenthal 은 고급소비재의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86년도 서독의 수입시장 경기는 무엇보다도 소비제품에 대한 민간지출 증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화의 지속적인 약세 추세와 상대적인 마르크 평가 절상으로 서독의 수출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당초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경제관련 전문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유가인하에 의한 잇점이 미화 약세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므로 수출경기의 부진 및 이에 따른 서독 국내경제의 침체현상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함.

Westland Bank에 따르면 마르크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으로 86년도 서독의 Terms of trade는 오히려 개선될 것이며, 따라서 86년도 서독의 교역흑자 규모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됨.

- Nihon Keizai 신문을 인용 보도한 86. 2. 12일자 VWD에 의하여 일산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4~5% 정도의 수출가격 인가가 수출업자측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함. 이러한 가격인하정책이 전수출국 및 모든 수출품목에 관련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인하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함.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출가인하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아주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인건비 등 생산제반조건을 감안하여 볼 때

특히 중급이하의 소비제품에 대한 수출가인하정책을 비록 일시적으로 기존시장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중진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러한 가격인하정책 지속은 일본 산업계에서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

VWD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일본경제가 엔화강세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지만 서독 및 기타 서유럽제국들과 같이 석유가 인하에 따라 일본의 교역수지는 평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 따라서 일본측으로는 수출가인하보다는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화 약세와 엔화 평가절상 그리고 유가인하 등 국제교역질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산제품의 대서독 수출전망은 아주 밝은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한국제품의 대서독 수출에 있어 결정적인 저해요소는 가격경쟁에 있음. 즉 후발개도국산 제품보다 질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가격면에서는 선진국 제품의 수준에 가까운 중급제품의 특유한 사정으로 시장개척 및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제교역사정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개선되어지고 있어 높은 수출 증가율이 확실시되고 있음.

이에 품질관리 등 제품의 질적수준 향상을 시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의 기존시장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6. 香 港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가정용)						
한 국	29,487	81,154	85,000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R, C/TV, 빙장고 등 완제품 경 우 중공의 외환통제, 소비재 완제품 수입억제 및 홍콩내 재고누적으로 엔화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공히 수출가격 10~20% 하락 상태</li> <li>• 일본산은 한국보다 우수한 품질로 경쟁력 고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의 완제품 수입억제 및 홍콩의 재고누적으로 인해 완제품 수출보다는 전자부품류의 진출 증대에 주 력할 것.</li> </ul>
일 본	526,795	592,308	650,000	9.7		
(부품)						
한 국	166,923	185,897	200,000	7.5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일 본	810,128	707,564	750,000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인 경우 전반적인 가격상승 추세 및 엔화 강세로 일본산 가격 약 20% 상승</li> <li>여타 부품류 경우 엔화 강세에 불 구 오히려 작년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중이어서 한국산 진출에 타격 예상.</li> </ul>	

〈홍콩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전망  
 현지 관련업체에서는 엔화의 급등 및 미달러화의 하락으로 인해 미달러화와 직결되어 있는 홍콩 달러화의 상대적인 가치하락으로 대일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대일 수입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수출의 경우 대일 수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엔화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대구주 및 미국지역으로부터는 섬유류, 신발, 전자, 완구 및 혁제품류에 대한 오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미달러화가 엔화뿐 아니라 서독 마르크화, 스위스, 프랑스 등 여타 유럽국 통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홍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제품, 직물, 완구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엔화 급등으로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임.

수입의 경우, 부문별로 대일 수입가격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대일 수입가격 인상폭이 엔화 상승폭 만큼 높지는 않은 실정임.

자동차, 공업용 기계, 통신장비, 문구류 등 현지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쉐어가 높은 일본제품의 수입가격은 상당히 오르는 반면 공업용 원자재, 식품, 의류, 직물, 플라스틱제품 등 일본이 다소 약세에 있는 품목의 수입가격은 인상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임. 한편 일본제품

이 거의 석권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 중공으로부터 인수거절로 인한 반송품의 재고 누적으로 가격은 보합세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사진기기, 음향기기류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

플라스틱제품 및 면직물은 홍콩 자체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관계로 대일수출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엔화 급등으로 향후 홍콩 수입상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수입선을 상당수 전환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나. 석유가격하락에 따른 전망

홍콩정청에 의하면 유가하락은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즉 단기적으로는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산유국들의 오일달러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퇴로 홍콩 재수출의 10대 시장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감소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원재료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홍콩제품의 생산비 절감으로 홍콩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유가하락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를 호전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켜 홍콩산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7. 台 湾

단위 : US천\$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11)	'86(전망)	증감률		
한 국	33	921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품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li> <li>부품류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li> </ul>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6)	'86(전망) 증감률		
일 본	24,962	16,578	25,000	<p>있다고 하겠으나 아직 수출가격이 높은 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경쟁력은 다소 하락할 것이 분명하나 주재국내 확고한 시장기반으로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li> </ul>	<p>있으나, 대만의 대한 수입 수요는 대만 전자제품 수출과 직결되고 또한 자국내 공급과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증대가 용이하지 않음.</p> <p>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거래선들과의 부단한 정보교환 및 신용구축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p> <p>대만은 금년 7월 1일부터 VTR의 수입을 개방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시장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망됨.</p>

8. 인도네시아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11)	'86(전망) 증감률		
한 국	10,070	5,168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경쟁력이 일본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의 경쟁은 더 한층 치열해질 것임.</li> <li>가격경쟁력면에서는 다소 불리해지나 워낙 시장기반이 확고하고 브랜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엔화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년초부터 일본제 가전제품의 가격은 엔고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3%정도 인상되어 실제로는 엔고의 영향이 국내시장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li> <li>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가전제품 수요량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퇴 및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전년비 15%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li>특히 현 수입 체제가 TV 및 라디오는 완제품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 있으며, 여타 가전제품들도 수입관세가 높기 때문에 가정용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CKD 형태로 수입되어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li> <li>또한 동부문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인바, 일본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li> <li>차제에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바이어 및 Local Partner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신용을 바탕으로 D/A 및 D/P조건에 의한 거래수락 등 지원폭을 더욱 확대하여 이번 기회에 바이어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신</li> </ul>
일 본	26,554	15,932	14,000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6)	'86(전망) 증감률		
					<p>규바이어 발권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문의 특기사항의 하나로 현지 바이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SGS는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경쟁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SGS 보다 규정적용에 엄격하며,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한국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경쟁국들만큼 Under-value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SGS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강구가 요망됨.</li> </ul> <p>* SGS :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스위스에 본부를 둔 수출물품검사 대행전문기관) (예 :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SGS에서 약 30~40%까지도 Under value를 묵인해 주고 있으나 한국의 SGS는 10%정도밖에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함)</p>

〈인도네시아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전망  
엔화 변동이 인니의 대일본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80% 이상이 자본재 및 기초원료들로서 대부분이 360여개에 달하는 일본의 합작회사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이며, 또한 일부품목의 경우는 일본업체들이 엔화 강제 정보를 인도네시아 업체에 사전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6개월 내지 1년분을 한번에 주문하는 등 오히려 가수요 현상이 일어나 일시적으로는 수입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반면, 인도네시아의 대일본 수출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48%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87%가 석유 및 천연 개스이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으로 석유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엔화 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전

반적으로 엔화 변동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달러화 환율 변동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수출입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석유 및 천연개스와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들이 미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가 하락하는 폭만큼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액은 줄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수입도 줄어들게 되며 자연 인도네시아의 구매력도 떨어져 인도네시아의 수입량도 떨어지게 됨. 여기에다 최근의 경기 부진까지 계속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심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수출입 교역량은 85년도 대비 15~20%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

나. 석유가격 하락에 따른 전망

석유가격의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석유 및 천연개스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수입부문에서도 석유 및 천연개스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연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86/'87년 예산은 석유가 배럴당 25弗을 기준으로 한 전년비 7%가 감소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국제원유가격이 이미 20弗선을 돌파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86/'87년에 산안 자체를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세수부문을 재조정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개발부문 지출도 전년비 30%이상이 하락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긴급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연기 또는 개발계획 재검토가 예상되어 전반적

인 수입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

석유가격이 23弗선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원유수출 부문에서는 약 15% 정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천연개스 수출도 대체로 현상유지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수출전체로는 '85년도의 추정수출액 190억弗보다 약 10%가 하락한 170억弗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수입은 석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측의 대폭적인 개발예산 삭감과 이로 인한 투자부진,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규제 강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퇴, 일반기업의 경영악화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입은 '85년도의 추정수입액 110억弗보다 약 13% 정도가 하락한 95억弗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9. 싱가포르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9)	'86(전망)	증감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러TV(미弗) 일 본      한 국 '85. 9 : 250/20"      245/20" '86. 2 : 280/20"      245/20"</li> <li>• 평균 10~15% 가격 인상(일본제품)</li> <li>• 일본제품의 현지 시장의 브랜드 이미지업으로 우리상품이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 면에서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제품은 가격면에서보다 브랜드의 이미지 업에서 수출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국 가전제품의 광고선전 활동 강화가 요망됨.</li> <li>•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대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li> <li>• 새로운 모델 및 디자인 개발</li> </ul>
한 국	1,182	750	1,172			
일 본	54,919	45,691	53,862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C. P. C. B : 5~10% 가격 인상(일본)</li> <li>• 캐패시터 : 3~5% 가격 인상(일본)</li> <li>1,000개당 16弗~20弗</li> <li>• 일본제품은 현지 합작회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많으므로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I. C 등은 엔화 강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 중소기업형 전자부품 진출 확대</li> <li>• 대만산 전자부품이 가격면에서 한국산과 경쟁력이 있으므로 가격경쟁력 제고</li> </ul>
한 국	20,384	17,723	21,143			
일 본	397,939	272,915	375,886			

#### <싱가포르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전망  
현재의 엔화대 싱가포르 달러 환율은 1979년 대 수준으로 엔화가 상승하였음. 지난 수 개월간 일본제품 가격은 약 5~15%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주재국의 TDB는 엔화 가격상승 효과가 일반소비제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

가하고 있으나 산업용 및 기타 고도기술제품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각종 부품수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부품구매는 싱가포르 내의 일본 합작회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임. 그러나 '86년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규모는 5~8%

선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가전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나. 석유가격 하락에 따른 전망

- 싱가폴은 산업구조상 석유제품이 싱가폴 제1의 수출입상품으로서 일산 110만 배럴의 정유시설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가와 중공, 사우디 등에서 원유를 수입, 정유하여 수출하여 왔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의 자체 정유시설 확보로 인해 작년에는 싱가폴 정유 생산 가동률이 약 70%로 하락하였음. 이같은 석유 산업 불황은 항만, 조선 및 조선수리부문의 침체와 더불어 각종 서비스산업에까지 경기침체의 파급효과를 초래하였음.
- 싱가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최근 급격한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변 산유국들의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로 예측되며, 이같은 주변국의 석유수입 감소는 필연적으로 구매력을 크게 위축함으로써 싱가폴의 대주변국 수출은 전년에 이어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수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무역발전국 견해).

- 싱가폴은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GDP비중 (24%)이 낮고 또한 석유의존도가 적은 전자, 컴퓨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산업중심 패턴을 갖고 있어 석유가 하락이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무역발전국(TDB)은 예측하고 있음.
- 한편 수입은 주변 산유국의 자체 정유 시설의 확충으로 주종 수입품목인 원유수입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수요 감퇴 및 주변국에 대한 재수출 물량 감소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5~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0. 사우디아라비아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출 경쟁력 분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1-6)	'86(전망)	증감률		
한 국	37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가격인상 C/TV 20"7system-JVC 400弗 ('85. 10)에서 '86. 1이후 60弗인상</li> <li>● 한국산 최신 침단제품(비디오 및 Multisystem 등)없어 경쟁 힘듬</li> <li>● 장기간 PR 및 A/S 통한 일본제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침단제품 개발공급</li> <li>● 홍보활동과 애프터 서비스 강화</li> <li>● 부품 국산화를 제고로 가격 인하</li> </ul>
일 본	951	231	370			

#### <사우디아라비아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 '84년 수입 339억弗, 수출 377억弗로 추제되고 있으나 이후 통계에 대한 공식적 발표없음.
- '85년 수출입 공히 300억弗에 달하리라는 전

망임.

- '86년 수출 230억弗, 수입 240억弗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사우디 수출의 95%가 유류제품인 관계임(어떤 기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음).

### 11. 파나마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출 경쟁력 분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한 국	19,757	27,531	36,219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인치 컬러TV의 경우 일본산 수출단가는 한국산보다 5~7%고가임 현재는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을 제고하여 남미와 같은 후진국에도 물량을 적절히 지원공급할 것.</li> </ul>
일 본	92,959	60,566	60,566	-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 엔화 강세가 반영된 수출단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li> <li>일본산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산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품목은 엔화 강세로 전망이 가장 밝은 품목중의 하나임.</li> </ul>

〈파나마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환율변동에 따른 전망

1) 수 출

파나마의 수출품은 Shrimp, Coffee 농산물 등 1차 산업제품으로서 대미국의존도가 높음. 특히 파나마는 미달러화 통화지역이므로 엔화 강세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음.

2) 수 입

파나마의 대일본 수입액은 '84년도의 경우 4억1,105만3,000弗인바, 엔화강세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의 대 파나마 수출품목은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수출 품목과는 상이한 일본만이 수출할 수 있는 고유 품목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관계없이 '85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유가하락에 따른 전망

1) 수 입

파나마는 인근국인 베네주엘라, 에쿠아도르 등의 경기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이 유가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수입경기는 '85년도 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외채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되고 외자 도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85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수 출

파나마 산업은 빈약한 관계로 수출품은 1차 상품에 그치고 있음. 또한 기초 원자재로서 석유제품 수입이 전무하며 석유수출국도 아님. 따라서 파나마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함.

12. 濠 洲

단위 : US천弗

국 별	수 출 실 적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86(전망)	증감률		
(가정용) 한 국 일 본	16,713 512,141	19,181 492,977	23,000 500,000	20.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화상승으로 한국산 가전제품의 대일본제품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단가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li> <li>• 또한 일본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엔화 상승에 따른 불리를 피하고 있고 수입품의 경우에도 일본업체들은 가격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li> <li>• 현재 한국산 제품과 일본산 제품의 시판가격 차이는 10~15%정도이며 엔화 상승으로 인한 일본산 제품의 가격 상승효과는 3~4월경에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거래선 확보</li> <li>• 고급품 소량 수주 대치</li> <li>• 세탁기, 전자렌지, 냉장고 등 수출 품종의 다양화</li> </ul>

국 별	수 출 실 적		'86(전망)	증감률	'86 수 출 경 쟁 력 분 석	수 출 증 대 방 안
	1984	1985				
(부품)						
한 국	1,108	1,419	1,700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전자부품의 대중 수출 품목은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로서 일본의 경우 동제품으로 호주시장을 석권하여 왔기 때문에 엔화 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 압박에 대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제품의 일본시장 점유율 잠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밖의 전자부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li> </ul>	
일 본	60,968	86,242	94,900	10.0		

〈호주의 '86년도 수출입 전망〉

가. 엔화 및 달러화 변동에 따른 전망

호주의 '86년도 수출입의 경우 엔화 및 달러화 변동에 따른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지 호주화환율 자체의 하락 추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면 수입은 일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수출의 경우에는 호주화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호주의 수출품목 대부분이 국제시세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광산물이나 농산물이어서 별다른 수출신장률은 기대되지 않고 있음.

나. 석유가격 하락에 따른 전망

석유가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하락한다면 호주의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의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수출의 경우 대중을 이루고 있는 석탄의 수출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와 같은 석유가격의 하락은 호주의 무역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